

재난안전 방재워크숍

사회복지시설 대피판단 및 위기관리의식 향상 KYT

케이코 기타가와 교수[사가대학]

사회복지시설 대피판단 및 위기관리의식 향상 **KYT**

고령자 시설 대피판단 기준의 필요성

수해의 경우, 고령자요양시설의 대피판단은 현재 시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일임.
이에 **사가현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피 매뉴얼을 작성하였다.**

***대피 판단 기준 작성의 검토사항**

- 자력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 집단의 시설
- 각 시설 마다 입지 조건 및 침수 리스크가 다름
- 해저드 맵의 유효 활용(사전 해저드 리스크의 파악)
- 건물 침수 리스크 파악 및 사전 건물 내 수직 대피의 검토
- 수직 대피, 옥외대피소 대피 시기의 검토 (타임라인의 필요성)
- 고령자 시설 (요양보험시설) 특성 = 경사지 · 좁은 폭 (4m미만)의 도로가 많아, 조기에 옥외 대피소로 대피가 필요

수해, 토사 재해, 지진의 대피 판단 차트 작성

避難プラン支援システム (浸水の場合)

左側→Yes

右側→No



대피를 위한 준비용품

「일본 · 구마모토지진 (2016) 의 대피소에서 부족했던 물품」에서 배울 것은?

- 생활용품
- 라디오
- 텔레비전
- 가설 화장실/후대 화장실
- 휴대전화 충전기 · 담요, 침구
- 음료수
- 마스크 및 손소독액
- 쌀 (알파미)
- 파티션
- 알레르기 대응 식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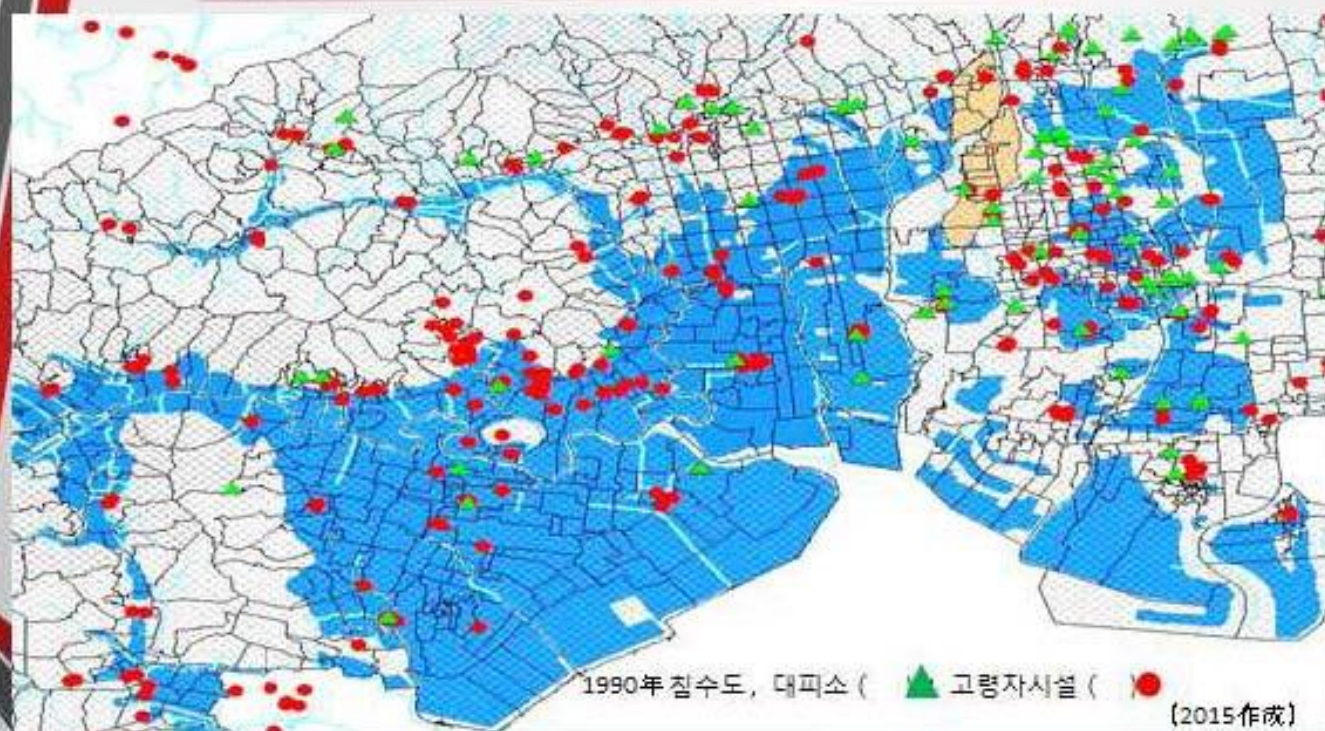
- 이유식 : 63 지자체
- 요양식 : 80 지자체
- 생활습관병 대응식 : 13 지자체
- 종이기저귀(유아용) : 307 지자체
- 종이기저귀(성인용) : 307 지자체
- 생리용품 : 267 지자체
- 배리어프리 대응 가설화장실 : 164 지자체
- 파티션 : 279 지자체
- 간이침대 : 108 지자체

2011년 동일본대지진 전까지 전국시설에는 :

- ① 손전등
- ② 라디오
- ③ 요양용 기저귀

사회복지시설에서 준비해야할 것은 ?

침수 및 대피소 · 고령자요양 시설 분포(사가 히라노)



일상의 위험장소를 KYT게임으로 인지



각 그림에서 위험한 곳을
5개씩 찾아보세요!

